

[일본, 2013년 8월] [농식품]

1. 일본지역, 현장 이슈

▶ 2013년 상반기 농축산물 수입 감소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13년 상반기 농축산물 수입가격은 '07년 수준으로 감소. 상반기의 엔시세는 전년동기대비 20%상승, 이에 따라 쇠고기와 과일류의 단가도 20% 상승하고 신선야채는 현지가격의 영향도 더해져 31% 오름

가격상승으로 신선야채 및 과일류의 수입물량도 엔고가 시작된 '07년 수준으로 감소하여, 일본산 농축산물을 압박해 온 엔고의 위험이 간신히 수습되기 시작

하반기에 들어 환율시세는 100엔 전후의 엔저 기조로, 수입단가는 계속 고가 추이를 보여, 수입물량도 감소 경향이 계속될 전망이다

▶ 이온, 전국에서 대규모 농장 전개

이온은 전국에서 경작포기농지 확보로 '15년도까지 현재의 약3배인 50ha 대규모 직영농장 전개 확대를 계획. IT나 슈퍼의 배송망을 활용하여 생산 코스트와 물류비를 20%정도 축소시켜 이온 브랜드 야채 판매액을 연간 약1000억엔으로 인상시킬 목표. 경합업체인 세븐&아이홀딩도 직영 농장을 늘리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집약을 힘입어 농업사업 확대가 진행

'09년 농업에 참가한 이온은, 현재 12곳의 직영농장에서 양배추나 배추 등 소비량이 많은 야채 약 10품목의 PB야채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15년까지 직영농장을 전국 30개소로 넓혀 약2만톤의 야채를 생산할 전망이다

직영농장과 더불어 계약농가도 늘려 '15년도에는 약2.5배인 150단체, 합계 2000ha지 확대할 전망. 이에 따라 슈퍼에서 판매하는 PB야채의 비율이 현재의 5배인 20%에까지 증가, 매출액도 연간 1000억엔 규모에 달할 전망

▶ 한국산 식품위반 사례

한국산 대일수출 활광어(3톤)에서 항생제인 엔로프로키사신(0.01ppm검출)으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8.2)

양식업체는 광림수산으로, 사전 국내 수산물검역소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에는 불검출 되었으나 일본검역소 검사시 검출로 나타남. 미량 검출로 볼 때, 기계 및 샘플 감도에 따라 차이가 난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동업체는 명령검사 면제리스트에서 삭제되고 향후 수출시 전수 명령검사 실시가 요구됨

2. 농식품 수입동향 및 전망

- '13. 6월말까지의 일본 전체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4,358,275백만 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10.1% 증가, 수입 1위국은 미국(18.8%), 2위 중국(13.4%), 3위 캐나다(6.6%) 순임

<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액 >

(단위:백만엔,%)

품목	'12년	'12년 1~6월	'13년 1~6월	증감율(%)
전 세계	7,917,805	3,956,854	4,358,275	10.1
한국	187,489	88,969	90,813	2.1

자료원 : 일본농림수산물성 통계정보

* 단, 한국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HS코드 1류~24류 합계 기준으로 산출

□ 야채

- 6월의 야채 수입동향은 엔저 등의 영향으로 수입단가는 전년동월대비 129%, 수입량은 전년동월대비 85%로 전년을 밑돌아 수입량 전체로 7개월 연속 전년을 밑돌았음
- 수입량은 201,704톤으로, 유형별로 보면 「신선 야채」는 77%인 58,768톤, 「냉동 야채」는 91%인 70,935톤, 「염장 등 야채」는 98%인 7,688톤, 「건조 야채」는 87%인 3,201톤, 「식초 조제야채」는 86%인 3,160톤, 「토마토 가공품」은 78%인 23,587톤, 「기조제야채」는 90%인 32,775톤, 「기타」는 149%인 1,591톤으로 나타남
- 한국산 야채 수입량은 전년동월비 104%인 4,935톤으로 유형별로 보면 「신선 야채」는 115%인 3,359톤, 「냉동 야채」는 56%인 37톤, 「토마토 가공품」은 33%인 26톤, 잼이나 조제딸기등 「기타 조제야채」는 91%인 1,513톤으로 나타남

□ 신선야채

- 6월의 신선야채 수입량 58,768톤 중 수입량이 증가한 주요 품목은 토마토가 전년동월비 135%인 700톤, 파프리카가 116%인 3,400톤으로 파프리카는 한국산 출하량이 많은 시기로 수입량이 증가함. 6월 한국산 수입량은 한국산이 1위로 2,902톤이고 2위가 네덜란드로 498톤임
- 한편, 수입량이 감소한 주요 품목은 결구양배추가 전년동월비 46%인 688톤, 감자가 65%인 1,308톤, 블루코리가 70%인 2,987톤, 멜론이 72%인 2,174톤, 양파가 77%인 25,806톤 등임. 블루코리는 6월 수입전량인 2,987톤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으나 미국의 흉작과 엔저 영향으로 수입단가가 높아져 전년을 대폭 밑돌아 10개월 연속 수입량이 전년대비 감소
- 한국산 신선야채 수입량은 전년동월대비 115%인 3,359톤으로 주요 품목은 파프리카 2,902톤, 토마토 241톤, 기타 버섯류 26톤, 기타 고추 등 23톤, 가지 29톤, 멜론 123톤임

□ 가공식품

- 6월 가공식품 수입금액은 1,390억엔으로 전년동월대비 9.1% 증가, 주류를 제외하면 1,205억엔으로 전년동월대비 8.6% 증가함. 분류별로 보면, 당류를 비롯한 축산가공품, 조미료, 주류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과자류가 감소 경향임

< 품목 수입통계(누계기준) >

(단위:백만엔,%)

품목	2012년 한국수입	2012년 1~6월	2013년 1~6월	전년대비 (%)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농식품전체	191,159	3,956,854	4,358,275	10.1	미국	820,641	중국	582,510	캐나다	288,079
멜론(신선)	240	1,699	2,052	20.8	멕시코	1,908	한국	129	뉴질랜드	10
밤	2,696	274	389	47.5	중국	363	한국	13	이탈리아	12
딸기(신선)	240	318	356	11.7	미국	334	한국	22	-	-
토마토	738	790	1,273	61.2	미국	578	한국	430	뉴질랜드	95
겉구양배추	187	1,095	664	△39.4	중국	590	한국	39	대만	34
오이	1.5	14	0.3	△97.1	한국	0.3	-	-	-	-
가지	21	4	10	117.4	한국	10	-	-	-	-
기타버섯	106	89	100	11.9	한국	55	이탈리아	12	프랑스	10
고추· 피망속	7,586	6,415	7,068	10.2	한국	4,930	뉴질랜드	1,586	네덜란드	527
파프리카	7,235	6,195	6,896	11.3	한국	4,758	뉴질랜드	1,586	네덜란드	527
계육조제품	885	82,269	95,614	16.2	태국	49,639	중국	45,260	브라질	267
추잉검	54	67	53	△20.3	한국	27	중국	10	대만	8
코코아조제품	328	1,175	1,043	△11.2	싱가포르	639	한국	176	태국	112
인스턴트커피	1,000	4,050	5,369	32.6	브라질	1,659	한국	906	콜롬비아	609
알콜음료	27,058	95,743	108,429	13.2	프랑스	37,356	한국	12,743	미국	10,809
곤약	105	1,230	1,099	△10.7	중국	972	인도네시아	79	한국	48
원료인삼	169	2,113	1,297	△38.6	중국	1,202	한국	62	대만	32

자료원 : 일본농림수산물성 통계정보

3. 타국산 경합품목 동향

□ 파프리카

- 1~6월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11.3% 증가한 6,896백만엔. 한국산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4,758백만엔, 2위의 뉴질랜드산은 28% 증가한 1,586백만엔, 네덜란드산은 37% 감소한 527백만엔임.

□ 기타 버섯

- 전체 수입액은 전년대비 10.0% 증가한 80백만엔. 한국산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49백만엔으로 나타남. 2위의 터키산은 10% 감소한 9백만엔, 3위인 프랑스는 작년동일 수준의 8백만엔임.

□ 멜론

- 1~6월의 수입액은 20.8% 증가한 2,052백만엔. 수입 1위인 멕시코산이 20% 증가하여 1,908백만엔, 한국산이 2위로 1% 감소한 129백만엔, 3위가 뉴질랜드로 68% 감소한 10백만엔으로 나타남.

□ 토마토

- 1~6월의 수입액은 61.2% 증가한 1,273백만엔. 미국산이 73% 대폭 증가하여 578백만엔, 한국산이 2위로 34% 증가한 430백만엔, 3위가 뉴질랜드로 58% 증가한 95백만엔으로 나타남. 업무용 수요를 중심으로 수입은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알콜음료

- 1~6월의 수입액은 13.2% 증가한 108,429백만엔. 1위인 프랑스산이 11% 증가한 37,356백만엔, 2위인 한국이 5% 감소한 12,743백만엔, 3위인 미국이 작년 3위국인 영국을 웃돌아 10,809백만엔임

□ 코코아조제품

- 1~6월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11.2% 감소한 1,043만엔. 수입 1위인 싱가포르가 23% 감소한 639백만엔, 2위인 한국이 14% 증가한 176백만엔, 3위인 태국이 49% 증가한 112백만엔으로 나타남

4. 동향 분석 [막걸리]

□ 시장규모

- 대일 막걸리 수출량은 2010년 진로의 막걸리시장 진출을 계기로 전년대비 2.5배 대폭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1년에도 맥주업체의 막걸리시장 진출과 TV CF 등 적극적인 판촉으로 2배 이상의 확대를 보임
- 2012년 막걸리 붐이 가라앉고 맥주업체에서의 전략 변경과 함께 대일 수출도 전년대비 약30% 감소하였으나 실제로 2012년 실적을 볼 때, 5년 전과 비교하면 약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 막걸리시장의 대표 브랜드 >

(단위: 백만엔)

브랜드명	기업명	2011년		2012년	
		판매액	점유율	판매액	점유율
서울막걸리	산토리주류	4,100	32.8%	3,800	32.5%
진로	진로	4,000	32.0%	3,700	31.6%
이동	이동	2,100	16.8%	1,900	16.2%
서울월매	명성	400	3.2%	300	2.6%
포천	명성	200	1.6%	200	1.7%
맛있는 막걸리	샷포로맥주	-	-	1,000	8.6%
기 타		1,700	13.6%	800	6.8%
합 계		12,500	100.0%	11,700	100.0%

자료원 : 후지경제 「식품마케팅편람」

□ 유통동향

- 기존 업무용 중심의 막걸리시장이 진로와 산토리주류의 진출로 캔상품이 증가하면서 2011~12년은 시판용이 크게 확대되어 60% 이상을 차지함
- 업무용 시장은 막걸리 붐 이전에 비해 막걸리 취급점이 확대되어 한국계 음식점의 한정된 판매에서 최근에는 체인점이나 개인경영 술집에까지 확대됨
- 캔 막걸리는 2012년에 크게 감소. 경합 카테고리인 RTD(Ready to Drink)는 대기업이 격전을 벌이고 있어 개발력 차이와 가격차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2012~13년, 막걸리 시장에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은 PB상품으로 '12년에 발매한 "카크야스"에 이어 '13년에는 "야오코", "생협"등 소매업체가 PB막걸리의 발매를 시작

	
카크야스 PB막걸리(한국산)	생협 PB막걸리(우리술·재팬)

□ 수입업체 동향

- 진로는 2013년 봄에 “JINRO 막걸리”의 내용과 패키지를 리뉴얼하고, 25명의 젊은 여성이 다양한 음용법 제안의 TV CF도 방송하면서, 다양성 음용 신을 제안
- 또한 진로는 지역한정 전략으로 프로야구팀을 모티브로 한 보틀 상품 전개를 본격화하여 수도권 이외의 소비 확보에 노력. 지금까지도 계절에 따른 음용법을 제안해 왔으나 2013년 상반기는 음용 방법과 음용 장소 등의 폭 넓은 제안으로 젊은층 소비자 확보를 위해 노력
- 우리술재팬은 유자과즙을 넣은 알코올도수 3%의 막걸리를 발매. 500ml PET 용기도 특징의 하나로, 1ℓ나 750ml가 많게 느끼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판매 촉진을 꾀함

		
진로 프로야구 막걸리	진로 막걸리 TV CF	우리술·재팬 “Me3”

□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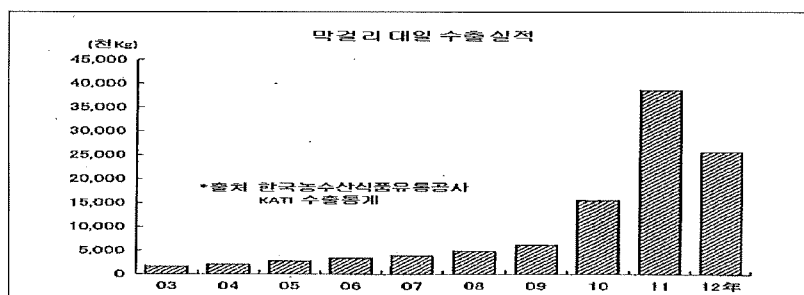
- 막걸리 일본 수출실적을 보면, 12년은 물량이 33.4% 감소한 25,741톤, 금액으로는 33.9% 감소한 31,990천불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막걸리 일본 수출실적 >

(단위: 톤, 천불, %)

2011년		2012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38,659	48,419	25,741	31,990	-33.4	-33.9

< 막걸리 일본 수출량 추이 >



□ 한국산 수입 감소사유

- 2012년 막걸리 붐이 사라지고 맥주업체에서의 전략 변경과 함께 대일 수출도 전년대비 약30% 감소를 보였으나 실제로 2012년 실적을 볼 때 5년 전에 비해 약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앞으로도 물량 감소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막걸리 붐 이전부터 막걸리를 취급해 온 일부 수입업체는 확실한 인지도 확립의 기회가 된 막걸리 붐으로 업무용 중심의 공급처가 확대되어 반드시 비관적인 의견 뿐만은 아님
- 맥주, 와인 등과의 믹스나 디저트 막걸리 등 다양한 응용법을 이용하여 막걸리 취급업체의 특성에 맞는 메뉴의 정착화로 취급점포의 확대 가능성 모색이 필요함
-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막걸리는 유통기한이 90일 전후로 살균 막걸리에 비해 1/4정도 짧고 가스 구멍 등의 취급문제로 일부 점포에서만 취급되고 있어 부가가치 상품으로써의 제안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여 PB막걸리 파급과 함께 가격경쟁을 벗어난 상품개발과 제안이 요구됨

< 저작권자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